

# 추석 대목 민생 치안 비상

## 보이스피싱 잇따르고 농산물 절도 활개

추석을 앞두고 현금을 노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농산물 절도 범죄들이 기승을 부려 명절 대목 치안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30일 오후 3시께 영광군 흥농읍에 사는 김모(여·52)씨는 20대~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으로부터 “땀을 납치했으니, 500만원을 준비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김씨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 이웃 주민(여·50)은 “김씨가 납치범과 통화하고 있다”며 영광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직감적으로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땀의 행방을 추적해 친구와 함께 광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피해를 막았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4시께에는 영

광군 영광읍에 사는 이모(여·53)씨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비가 필요하다”는 한 남성의 전화를 받은 직후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단 송금을 제지하고 나서 군 복무 중인 이씨 아들의 소재를 확인해 거액의 송금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현금 수요가 증가하고,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틈을 타 보이스피싱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낮은 사람으로부터 송금 요구 전화가 오면 신고부터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산물 도둑이 활개를 치는 바람에 농촌마다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농가에서 추석 제수품 마련과 자녀들에게 보내기 위해 수확

을 서둘러 농촌털이범들도 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7시께 곡성군 결면 가정리에 사는 김모(63)씨의 비닐하우스에서 고추 42kg(70인·140만원 상당)이 도난당했다. 앞서 17일께에는 곡성군 고달면에 사는 이모(59)씨가 고추 14kg을 도둑맞는 등 최근 농산물 수확철을 앞두고 농산물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

곡성경찰 관계자는 “농민들이 수개월에 걸쳐 고생하며 자식처럼 가꾼 농산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심정이 어떨겠느냐”며 “격무에 시달리더라도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해 도난사고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은 최근 자율방범대와 마을 지킴이·마을 이장·경찰관 등이 참여하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 지키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부 농민들

은 순찰 노선도를 제작해 비치하고 주간 한 차례, 야간 두 차례씩 순찰 등을 하고 있다. 또 농촌지역 경찰서와 파출소는 경작자와 자율방범대, 마을 이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도난 예방교육과 경보장치·무인카메라 확대·농민들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산물 절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곡성경찰 관계자는 “농민들이 수개월에 걸쳐 고생하며 자식처럼 가꾼 농산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심정이 어떨겠느냐”며 “격무에 시달리더라도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해 도난사고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계경기자 kjkim@/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 “성폭행 신고했다” 대낮 살해 기도

## 산악회에서 만난 여성 보복·납치 40대 구속

성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귀다 헤어진 여성을 보복·납치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31일 한때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하려한 김모(47)씨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0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사는 정모(여·37)씨의 집 앞에서 납치·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자영업자인 김씨는 6개월 전 산악회 동호회에서 만난 정씨와 사귀게 됐으며 최근 정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이어, “(김씨가) 나를 두 차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정됐다. 김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드러났다.

정씨는 최근 경찰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수년 전 본처와 이혼한 김씨는 최근 정씨가 만나지 않자 마찌·노근·농약 등을 자신의 차에 싣고 가 납치·살해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경찰서와 공조로 정씨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현직 부장검사 간통

### 불륜 현장 발각 사지

현직 부장 검사가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 남편에게 현장을 들켜 사직서를 냈다.

창원지검 산하 모 지청의 A 부장검사는 지난 31일 지청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오전 5시께 검찰의 범죄피해자 관련 단체 위원인 유부녀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B씨와 함께 있다가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B씨의 남편은 아내가 새벽에 집을 나서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미행, 두 사람의 불륜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자리에서 A 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B씨와 여러 차례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청은 대검찰청에 A 검사의 사직서를 보냈으며,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그는 조만간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깨끗한 검찰문화”를 강조한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검찰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연합뉴스

## 상습 도박 신정환 항소심도 징역 8월

○“범인이 역대 최대의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신정환(37)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2억여원을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신씨의 항소를 기각

○“신씨는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서 출석했으며,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는데 신씨는 작년 8월28부터 약 10일간 필리핀 세부의 한 카지노에서 총 2억1050만원으로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쪽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지난 6월 1심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연합뉴스

## 전북경찰

지난 5월 술에 만취해 20대 여환자 앞에서 잠자다 발각된 수련의가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광주일보 8월 24일 6면)로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범죄와 마약류관리를 위한 혐의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5월19일 새벽 2시께 병원 4층 병실에서 잠든 B씨에게 항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몰래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침대에서 B씨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회전 중인 간호사에게 20분 만에 발각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경마 잃은 돈 만회하려 텐트 ‘산도박’

### 함평서... 판돈 수억원대

### 조폭·주부 등 10명 검거

경마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야산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수억원대의 이른바 ‘산도박’을 한 조폭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A과 행동대원 김모(53)씨 등 조폭폭력배 행동대원 4명은 지난 5월 16일 자정 함평군 함평읍의 한 야산에 대형 텐트를 설치한 뒤 주부 조모(여·30)씨 등 6명을 불러 모았다.

조씨 등 6명은 주부·회사원·자영업자로 김씨와 도박장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다.

김씨 등이 이들을 불러 모은 이유는 도박을 하기 위해서다. 이들 대부분은 경마에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 만원을 잃은

사람들이다. 김씨는 도박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자며 이들을 산도박장으로 유인했고, 이들은 김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또 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

이들 10명이 이날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벌인 도박 판돈은 무려 2억원.

하지만, 경찰의 단속을 피해 야산으로 들어간 것이 오히려 이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심야에 10명이 야산으로 향하는 것을 이상히 여긴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김씨 등 조폭폭력배 행동대원 4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조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보해저축은행 수사 지휘

### 성영훈 전 광주지검장 사표

광주지검장 시절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지난 22일자 검찰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검

찰청 공관송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성영훈 검사장(51·사법연수원 15기)이 지난 30일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 출신으로 명지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성 검사장은 법무부 공보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남부지검 차장, 교양지청장,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추석 주문량 맞추기 분주 추석연휴를 10여일 앞둔 지난 31일 담양군 청평면의 담양한과 공장에서 직원들이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포장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함바비리’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

### 징역 10월 집유 2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양성철(56)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필요한 경찰직에 있던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았으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준다”며 “금품수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2008~2009년 경찰청 교통관리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장으로 근무하며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에게서 함바 수수·운영 과정의 각종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경북청장 재직 당시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 민원해결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병철(56)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예정됐던 브로커 유씨에 대한 선고는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불구속 기소)의 재판이 변론재개되면 서 증인출석 등의 필요에 따라 9월 이후로 연기됐다.

/연합뉴스

## 경찰, 학교 일진회 집중 단속

경찰청은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 폭력과 폭력 서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은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를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정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초반에 자진신고할 경우 산도하고 피해 신고 학생은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해 줄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폭력을 쓰거나 금품을 빼앗은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이며 인터넷이나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가족과 친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폭력서클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자진신고한 폭력서클은 자발적으로 해체하도록 유도하고 구성원 중 초범은 선처하되 신고하지 않은 일진회나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성인 폭력조직과의 연계 고리를 파악해 성인 조직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경우 엄벌할 계획이다. 전국 249개 경찰서별로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이 지정돼 일선 학교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걱정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학교폭력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미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9월 1일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